



##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스팟 리포트타주

취재 및 사진, 글 : 최성훈 (트렌드 리서처)

자료제공: 무대륙, 박하재홍



## ‘재활용 디자인 사례’

-무대륙 / 달광선 프로젝트-

여름냄새를 풍기며 무더웠던 어느 오후 상수동에 위치한 무대륙 카페를 찾았다. 입구부터 색다른 분위기의 카페를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과거로의 여행을 온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카페 안의 모든 가구는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들어 졌는데 그 분위기가 때문인지 않은 한적하고 작은 시골마을에 온 듯이 편안했다. 현재 무대륙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달광선 프로젝트 팀원이었던 김건아씨를 만나 재활용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디자인 전공이 아닌 영문과를 졸업한 김건아씨는 여행을 좋아하며 그녀처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친분을 통해 만난 지인들과 함께 여행지에서 구입한 기념품들을 하나 둘 모아 안국동에 카페 '사막'이라는 곳에서 판매를 시작으로 멤버가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후 삼지길 주변에 '달광선'이라는 샵을 열고 여행지의 기념품 외에도 노트나 옷들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삼청동을 거쳐 홍대로 옮기며 소품, 수공예품을 제작판매 하며 왕성한 달광선 프로젝트 활동으로 이어졌다. 아쉽게도 현재는 '달광선' 샵은 운영하지 않고 '무대륙'이라는 문화 공간 카페를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 문화인들과 대중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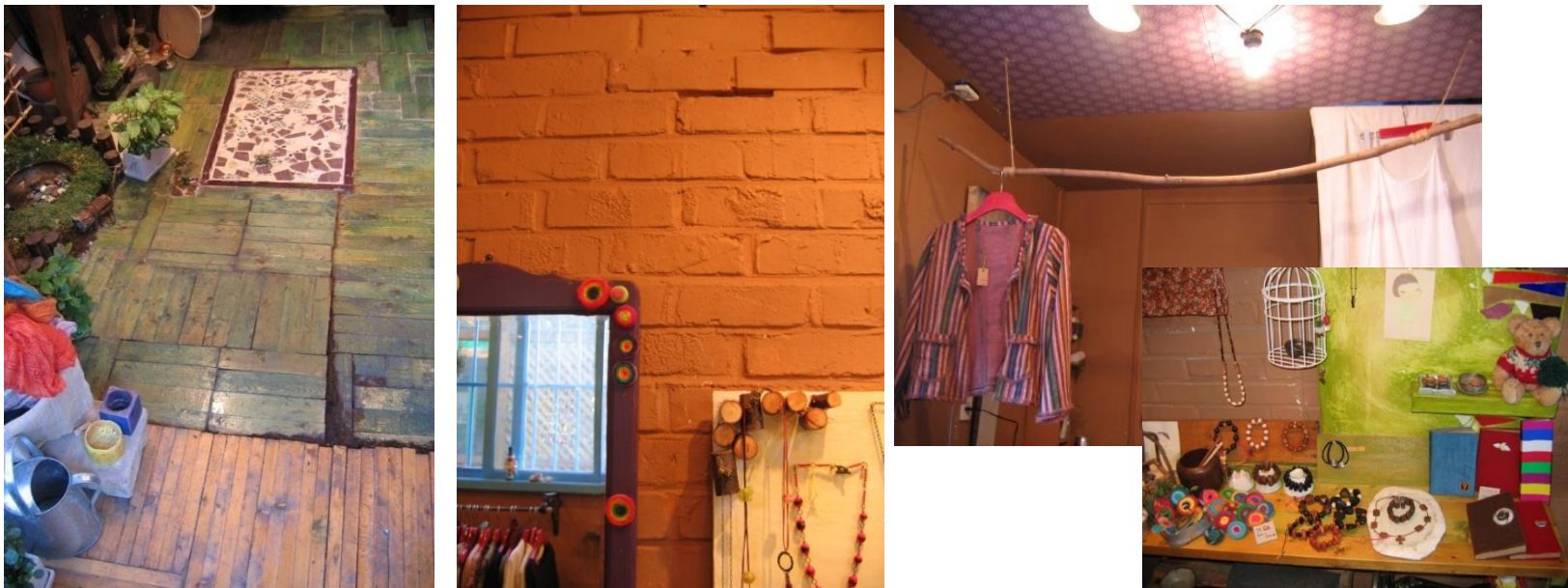


사진 2> 홍대에서 운영되었던 '달광선 프로젝트' 샵 사진: 버려진 나무와 철판으로 꾸며진 샵 외부(위)/ 버려진 나무와 타일로 만든 내부 바닥(왼쪽 아래)/ 버려진 거울과 나무 판을 이용한 소품 display(가운데)/버려진 나뭇가지를 이용한 옷걸이와 직접 제작한 수공예품들(오른쪽)사진자료 제공-박하재홍



‘독창적이며 하나 뿐이라는 특별함과 재활용이라는 일석이조’

재활용 디자인은 그때 그때 재활용 재료에 따라 디자인과 전체적인 형태가 구성되는 즉흥적이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을 지녔다고 김건아씨는 말한다. 사실 처음에는 비용문제로 인해 재활용 재료를 사용한 디자인 작품을 시작 했었지만 작업을 하면서 점차 재활용 디자인만이 가지는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고. 수입물품 박스나 철거된 건물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 작품이 탄생 될 때는 구매한 새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작품보다 그 뿌듯함이 몇 배가 된다고 한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하며 환경운동가로도 활동 중인 ‘박하재홍’씨와의 만남도 재활용 디자인 삼 ‘달광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신촌 ‘아름다운 책방’을 위한 재활용 컨셉의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아 작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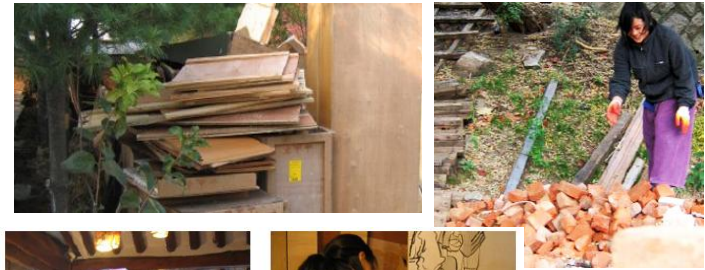


사진3 전체>  
신촌 아름다운 책방 인테리어 작업과정  
사진자료 제공-박하재홍

사진4> 100% 재활용 재료 사용을  
컨셉으로 한 신촌 아름다운 책방 내부  
사진자료 제공-박하재홍



### ‘재활용 폐품의 실용성과 용이성의 변화’

김건아씨는 아직도 진정한 재활용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재활용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디자인에 활용할 재료를 다시 다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과 비용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폐자재 합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녹슨 철못이나 페인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구매 가능한 새로운 합판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나 인력과 시간의 소모가 훨씬 크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재활용 자재를 다듬어 저가에 판매하는 루트가 거의 없는 실정. 또한 유성페인트 등을 벗겨내야 할 때는 그보다 더욱 독한 화학성분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그나마 나무의 경우에는 옛날 한옥을 철거에서 생긴 재활용 목재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활용 나무의 희소성과 더불어 트렌드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 자재를 이용한 디자인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공급보다 소비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진정한 재활용 디자인의 의미가 무색해 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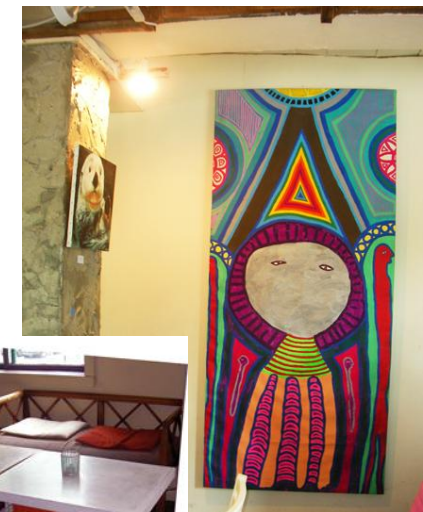


사진5 전체>

재활용 재료들로 꾸며진 ‘무대륙’ 내부  
& 전시 ‘함께있는우리, 느리게꿈꾸기’

**‘환경에 반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디자인..’**

진정한 재활용 디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건아씨는 더 이상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최소화 디자인, 환경에 반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 디자인,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여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 역시 재활용 디자인 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재활용 디자인 사용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용 재료의 선택뿐만 아니라 마감이 잘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소비자가 미적으로나 style적인 면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 <취재후기>

재활용 디자인에 사용되는 재활용품이나 폐자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용과 재활용 디자인에 역행하는 추가적인 재료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이야기에 놀랐다. 친환경 디자인이라는 명목아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재활용 디자인. 김건아씨와의 만남을 통해 원래 의미와 취지를 벗어나 단순히 트렌드를 위해 만들어지는 재활용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진정한 재활용 디자인을 위한 디자이너들의 정확한 인식과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